

# 복지선교: 21세기 개혁주의 선교의 새로운 방향모색

장동민(천안대학교 기독교학부)

## 1. 서 론: 한국사회의 변화와 복지선교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한국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傳道, evangelism)라고 부르고, 해외 복음 전하는 것을 가리켜 ‘선교’(宣敎, mission)라고 부른다.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것은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일 것이다. 음식과 의복을 비롯한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전도’는 문화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선교’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한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같은 한국인이라고 해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위하여 많은 전문가와 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상당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계층별로 나누자면, 아주 부요한 사람들이 소수 있었고, 대다수는 중산층 혹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소위 ‘민중’(民衆)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가난한 노동자와 도시에 유입된 빈민들이었으나, 이들에게도 중산층으로 편입될 수 있는 희망이 아주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모두 한 언어를 사용하고 한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 10년 사이에, 특히 세계화가 깊숙이 진행되고 IMF 구제금융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빈민이 많아지고 다양해 졌다는 말이다.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저소득계층, 소위 ‘차상위계층’, 버림 받은 장애인,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살길을 잃은 농민, 재소자, 매매춘으로 몸과 정신을 망친 ‘언니들’, 외국인 이주노동자, 탈북자, 학대받는 여성과 어린이, 거리를 방황하며 ‘형님’ 밑에서 풀마니 노릇하는 초등학교생들,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특수 아동 등으로 확대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진작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생길 것 같지 않던 ‘노숙자’가 등장한 것도 이 때쯤이었다. ‘민중’은 다양화되고, 국제화되고,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 된 것이다. 이들은 보통의 한국 사람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한 문화권에 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문화가 다른 경우가 많다. MP3 리시버를 귀에 꽂고, 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질주하는, 그 돈을 벌기 위하여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과 대화가 쉽게 통하겠는가? 이혼 직전에 있는 주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중년, 알코올중독자,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한 고학력 실업자, 노동조합 운동에 헌신한 조합 간부, 밤낮을 바꾸어 근무해야 하는 직종을 가진 사람, 외국에서 한 5년 살다가 온 절반의 한국인 등등.... 이들 모두가 우리 사회의 일원이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와 문제의식과 습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서로 다른 사고 체계 속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 즉 정상적인 ‘전도’ 활동으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라. 위에서 열거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한국 교회가 과연 그들을 수용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의 죄악과 소견 좁음만 탓할 필요는 없다. 물론 중산층화한 기성교회의 잘못이 많이 있지만, 더욱 큰 이유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파편화의 영향 때문이다. 이런 사회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단지 우리의 부족만을 탓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변화된 사회에 대하여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즉 전문적인 ‘선교’ 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나는 새로운 문제를 맞은 새로운 세대의 복음전파 전략을 ‘복지선교’라 부르고 싶다. 다양해진 계층 가운데 특별히 전략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우선적인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층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하지만, 이미 한국 교회가 중산층화하였다는 것을 전제할 때, 소외 계층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복지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사회봉사 실천을 의미하는 ‘디아코니아’(Diakonia)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뉘앙스가 다르다. 디아코니아가 이웃을 돌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충실한 것인 반면, 복지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활동에 그 초점을 맞춘다. ‘복지선교’가 ‘기독교 사회복지’와도 유사한 개념이지만 후자가 사회복지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다소 다르다. 요컨대 복지선교는 교회가 주체가 되는 선교의 한 방법인 것이다.

최근 들어 많은 교회들이 복지선교에 눈을 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웬만한 교회에서는 경노대학, 소년소녀가장돕기, 장애인 목욕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대형교회에서는 앞다투어 복지관을 설립한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나 대한예수교장로회(기장), 기독교감리회 등에서는 교단 차원의 사회봉사 상설부서가 있어, 디아코니아를 전담한다. 그러나 이들 봉사 프로그램을 위한 신학적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 프로그램은 주로 복음전파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도 모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좀 더 체계적으로 사회봉사를 하려 하는 교회에서는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목회자 자신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회복지학은 이미 세속화(secularized)된 복지학이다. 사회복지학이 사회학, 정책학,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등의 종합학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학문들은 이미 오래 전에 세속화되었다. 사회복지학이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기독교적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일반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국가의 자격 시험에 통과한 사회복지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가 기독교적 복지학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교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 해도 세속적 사회복지학의 기반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이 기독교적 이념을 담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회가 복지선교를 수행하는 이념과 가치체계와 이에 따른 실천방향을 정립해야 할 때이다. 필자는 사회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신앙인과 교회를 위하여, 기독교적 내용을 담은 핵심가치 체계와 윤리강령, 그리고 실천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단순히 성경을 재진술하는 것도 아니어야 하고, 현재 사용되는 것들에 성경적 언어를 덧입힌 것이어서도 안 된다. 전통적인 기독교가 지켜 온 핵심가치가 분명히 드러나면서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행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그러한 기독교적 복지선교의 이론을 정립할 때, 어떤 정신을 가지

고 어떤 원리 하에서 제정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 2. 교회의 복지선교와 세속적 사회복지의 관계정립을 위한 모델<sup>1)</sup>

교회의 복지선교의 이론과 실천을 정립하려 할 때 우선 살펴야 하는 것은 세속적 사회복지와의 관계이다. 복지선교가 단순히 성경적 명령을 따르는 교회의 활동이므로 일반 사회복지의 이론과 관계없이 수행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속 학문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는가? 세속적인 과학의 발달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개혁주의 전통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진화론과 성경의 고등비평을 앞세운 과학주의가 기독교를 공격할 때, 자유주의자는 과학을 받아들여다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근본주의자는 기독교를 수호하려고 반지성주의로 나아갔다. 그러나 개혁주의 전통을 강하게 유지하던 미국의 프린스턴대학과 신학교의 경우,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산물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성경과 조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복지선교의 방향을 정립할 때도 이러한 예를 따라 세속학문을 정당하게 취급하면서도 비성경적인 부분에 대하여 비판하여야 할 것이다. 성경과 학문의 조화와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아래의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하나하나 살펴면서, 복지선교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1) 재구성모델(Reconstructionist Model)

성경에 기초를 둔 교회의 복지선교와 세속적인 사회복지의 관계를 다룰 때, 맨 처음 떠오르는 모델은 “재구성주의 모델”(Reconstructionist Model)이다. 성경만이 참된 가치를 제공하는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영역에서도 성경의 기초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적 기초를 가지지 않은 모든 것은 인간의 자율적인 이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것을 무너뜨린 후에 다시 성경의 기초 위에 가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세속적인 일반 학문의 모든 분야는 인본주의에 근거한 독특한 전제(presuppositions)가 있고 이것이 기독교신앙과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분야가 거의 없다고 한다.

기독교에서는 절대적 인격인 하나님이 모든 가치의 근원인데 반하여 일반 사회복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모든 가치의 근원이다. 기독교의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을 때 이성적, 도덕적 기능이 마비되었다. 독자적으로 가치체계를 세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치체계를 세우려는 시도 자체가 죄의 증좌이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밖에 없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인간의 ‘복지’(welfare)를 원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는 모든 외적인 복지활동은 오히려 그 사람을 타락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

1) 이 논문의 틀을 이루고 있는 재구성모델, 양립모델, 변혁모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William Hasker, “Faith-Learning Integration: An Overview,” *Christian Scholar’s Review*, March 1992의 착상을 빌려온 것임을 밝혀 둔다. 헤스커는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적 전통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는 특별히 기독교적 사회복지학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것이 아니지만, 필자가 그 원리를 복지선교에 원용하였다.

다.

교회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복지의 내용과 가치는 상당히 많은 경우 재구성주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목회자가 교회의 사회복지를 독려할 때 영혼구원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게 마련이다. 이를 따르는 교인들도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지를 시행한다. 이 재구성주의를 ‘근본주의’(fundamentalism)적인 교리와 자기교회중심주의라는 권력의 지가 결합된 것이라고 비하만 할 것이 아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재구성주의 모델에 대하여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속적 사회사업의 학문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교회의 복지선교를 성경적 가치에 준하여 재구성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난점을 안고 있다.<sup>2)</sup> 첫째, 복지의 대상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 어떤 사회사업을 하든지 예배와 복음전도가 그 중심이 될텐데, 그렇게 되면 불신자를 수용하기 어렵게 된다. 어쩌다가 불신자가 참여하기도 하지만, 봉사의 의도가 교인의 숫자를 늘리려는 것일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고 참여하게 마련이다.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어떤 의도를 가진 봉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대다수의 비신자는 불편함을 느낀다.

둘째, 사회복지의 안목과 범위가 제한될 염려가 있다. 교회에서는 주로 개인윤리와 개인적인 구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안목을 갖지 못한다.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는 것도 부족할 뿐 아니라, 평등이니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려 하지도 않는다. 또한 다른 가치를 고백하는 단체와 손쉽게 연합할 수도 없다. 지방정부나 지역사회와 연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교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과도 연합운동을 할 수 없다.

필자가 믿기로, 성경은 이러한 근본주의적인 모델을 반대한다. 성경에서는 제도적이며 구조적인 복지 운동도 포함하는 사회를 꿈꾼다.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개인적 차원의 구제와 사회적 차원의 변혁이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규모의 개인적인 봉사를 하더라도 사회운동의 큰 원리 하에서 행하여야 한다. 기독교 복지의 최상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도 단순히 복음만 전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외쳤던 죄의 회개는 그 사회 모순의 핵심을 겨냥한 것이었고, 악한 구조 하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한 포용이라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다. 재구성모델은 자칫 기독교의 핵심을 지키려다가 기독교가 가진 포용성과 풍부함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

## (2) 양립모델(Compatibilist Model)

재구성모델과 정반대 축에는 양립모델(Compatibilist Model)이 있다. 교회에서 행하는 복지선교와 세속적 복지학이 아무런 충돌이 없이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양립모델의 근거는 대체로 두 가지 정도일 것이다. 첫째, “복지”의 시작이 기독교이고, 그 정신이 성경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추구하는 봉사와 복지사의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회복지의 정신이 성경의 정신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이유는 사

2) 다음과 같은 저자들이 개신교 사회복지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원규,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성서연구사, 1996; 김미숙, 『한국 종교계의 사회복지 역할과 활성화 방안』,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주최 제6차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심포지엄 (2003년 12월 9일) 발제문;

회복지의 역사적 뿌리 가운데 기독교 정신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의 전문(前文)에 나타난 가치체계와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 크게 다른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약자의 편에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 등 어느 하나도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구현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단지 이런 사회봉사의 철학적·종교적 기초만 다소 다를 뿐이라 한다. 세속적인 복지학에서의 가치는 “인본주의·평등사상”이고, 기독교에서 인간을 존중하는 기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세속적 사회복지학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기독교적 가치가 그 표현만 다를 뿐,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같다고 주장 혹은 가정(假定)하는 것이 양립모델이다.

양립모델의 두 번째 근거는, 소위 “보통 은혜”(Common Grace) 라고 하는 것이다. 타락한 자연인이라도 이성적, 도덕적, 영적 능력이 남아 있어서, 인간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에 부합하는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선행을 할 수도 있다는 교리이다. 보통은혜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받는 “특별은혜”(Special Grace) 혹은 “구원의 은혜”(Saving Grace)와 구별된다. 후자는 복음전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이 목표이고, 전자는 외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양립모델에서는, “복지”는 영혼의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중요시하는 기독교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한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까지 받으면 더 좋겠지만, 세속적 복지관에서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 즉 ‘복지’는 일반 복지학을 그대로 따르고, ‘선교’를 위하여는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양립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복지선교는 세속적 사회복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 복지사는 다른 실천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 일반 사회복지학을 따르면서, 그 위에 기독교가 추구하는 복음전파라는 가치를 보충하면 된다. 일반적인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세속적인 복지사로부터 도움을 받고, 함께 사역해 나갈 수 있다. 세속적인 사회복지학이 교회로부터 독립한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풍부한 학문적 업적을 쌓았는데 이를 배운다는 것이다. 기독교인 사회복지사가 교회와 복음전도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미시적인 사회복지의 실천방법과 거시적인 사회복지 정책론과 심지어 영성도 배워야 한다. 기독교인 사회복지사와 세속적 사회복지사가 다른 점은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추동력(推動力)일 뿐이라 한다. 신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불신 사회복지사보다 훨씬 강한 희생정신과 인내심을 가지고 복지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세속적인 사회복지학이 말하는 가치가 동일할 것인가? 하나님을 모든 가치의 근원으로 삼는 기독교의 가치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언급이 없는) “인본주의·평등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가치 사이에 아무런 충돌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 타락했다고 말할 때 지성은 타락하지 않은 채 보존되었다는 말인가? 학문의 종교적/철학적 기초와 핵심가치, 그리고 그 학문의 기본적인 방법론과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 (3) 변혁모델(Transformationist Model)

우리는 위에서 일반사회복지의 가치와 기독교사회복지의 기초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재구성모델은 일반사회복지와 기독교적 복지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를 비롯한 사회복지의 실천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기초가 다르므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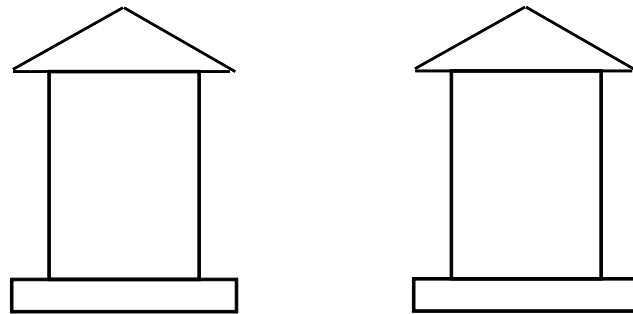


그림 1 재구성모델

반면 양립모델은 하나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기독교적 사회복지의 기초가 성경이고, 일반사회복지의 기초가 인본주의이지만, 양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복지의 내용은 같다는 것이다. 단지 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의 자세가 다를 뿐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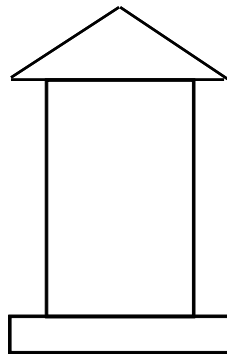


그림 2 양립모델

이 두 모델 각각이 가진 강점과 약점에 대하여는 이미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제 제 3의 모델을 설명하려 한다. 이른바 “변혁모델”(Transformationist Model)이다. 변혁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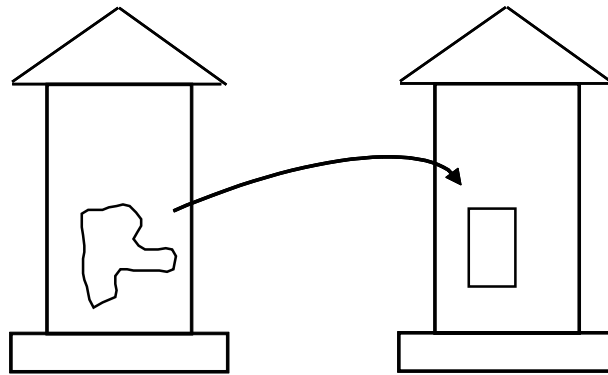


그림 3 변혁모델

변혁모델은 두 개의 집이 있다는 점에서는 재구성모델을 닮아 있다. 기독교라는 기초와 세속적 사회사업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와 실천방법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사회사업이 비기독교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필요는 없다. 복지선교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사회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빌려 쓸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일반사회사업이라는 집의 벽돌은 그 건물에 꼭 맞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사회사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다. 유신론에 기초한 건물의 용도 맞도록 새롭게 가공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재구성모델은 다소 근본주의적이고 양립모델은 세속 학문을 거의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서 제3의 대안인 변혁모델을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모든 학문에 변혁모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학문의 내용이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기초와 별 관계가 없을 때에는 양립모델 쪽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학이나 논리학, 언어학과 같은, 가치중립적이고 도구적인 학문일 경우이다. 반대로 학문의 내용이 그 종교적 기초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수록 재구성모델 쪽에 가까워 질 것이다. 철학이나 역사와 같은 인문학의 경우 그 내용은 학자의 종교적 성향에 따라 편향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사회복지학의 경우는 어떤 모델이 적합할 것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변혁모델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의 내용은 핵심가치와 윤리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고, 핵심가치는 다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학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과학’이라는 점에서 가치중립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복지선교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는 변혁모델을 채택해야 한다.

### 3. 복지선교의 실천을 위하여

우리는 위에서 21세기 한국교회 선교의 방향이 국내선교 그것도 복지선교에 치중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복지선교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태도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제 변혁모델을 염두에 두면서 교회에서 복지선교의 정책을 마련하거나 이를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의 사항을 논하고자 한다. 변혁모델을 도입하여 복지선교를 실천하고자 할 때, “변혁”이라는 단어가 말해 주듯이, 한편으로는 세속적 사회복지학의

실천을 비판해야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세속적 복지학과 성경을 비교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 (1) 복음전도와 봉사

복지선교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는 ‘선교’와 ‘복지’의 관계이다. 즉 복음전파가 먼저이나 혹은 사회봉사가 먼저이나 하는 문제이다. 이 둘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은 양립모델이 추구하는 바이다. 즉 복음전파 라는 목적을 위하여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봉사는 가치가 그 자체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전도와 관계없이도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옳지 않다. 케이크에 크림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화학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복음이 복지의 내용을 결정하고, 복지의 내용은 복음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에서는 복음전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영혼구원을 최상의 가치로 여긴다고 해서 그를 근본주의자로 몰아붙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결국 세상은 서로 다른 가치체계의 충돌로 이루어져 있다. 기독교에서는 영혼의 구원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그 하위개념으로 다른 가치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다른 종교나 세속적 사회복지학에서는 자기 나름의 최상의 가치를 설정하고 하위개념으로 다른 가치를 두고 있다. 기독교가 영혼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sup>3)</sup> 그러나 복음전도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는 종교적 독선주의자라는 말을 들을 것이고, 복지의 대상이 좁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치를 양보한다는 것은 타협이 될 것이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기독교의 교리를 하나의 명제로서만 수납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를 깊이 생각할 때 답이 도출될 줄로 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에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물질적인 도움이 사람을 더 타락한 길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심리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의 정신을 건전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삶의 의미를 갖고 행복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다. 기독교가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의하여 영혼의 구원을 얻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복지’가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사례1. S시에 있는 N교회에서는 사회복지선교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예배도 함께 드리고, 밀린 임금을 받아주기도 하며, 한글을 가르치고, 무료의료봉사도 한다. 한번은 이주노동자 중 한 사람(L)이 무슨 문제로 다투다가 같은 민족 친구에게 맞은 것이 잘못되어 죽고 말았다. 회사도 이주노동자 에이전시도 자국 대사관도 이 문제에 대하여 관여하기를 꺼려하며, 보상금을 한 푼도 주지 않으려 하였다. 본국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의 살 길이 막막함은 물론이고 장례식도 못 치를 것 같았다. N교회의 목사와 사회복지 담당자는 여러 날 동안 많은 곳을 찾아다닌 끝에

3) 한국장로교 가운데 사회복지에 가장 앞서가는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사회복지부에서 최근(2004년) 마련한 “기독교사회운동 지침서”에서는 복음전도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 이 문서가 보여주는 기독교사회운동의 기본 가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정의의 추구,” “구조적인 사랑의 실천,” “풍성한 생명의 삶,” “평화의 선언,” “지극히 작은 자들과의 연대,” “근접해야 할 목표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선성” 등의 항목이다. 이 일곱 가지 항목 가운데 어느 하나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 없다. 예수를 믿어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과 복지를 시행하는 것을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3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 돈으로 L씨의 장례식을 치루고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 주었다. 죽은 사람에게는 동생(A)이 하나 있었는데, 장례식을 치룬 다음 주 일요일 그가 교회에 나왔다. N교회 목사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스태프들이 경악할 일이 벌어졌다. A는 형이 받은 보상금의 일부를 가지고 명품 트레이닝복과 운동화, 선수용 농구공을 들고, 웃으며 나타난 것이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풍긴다. 쇼걸로 종사하는 같은 민족 여자친구와 사귀며 돈을 낭비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영혼구원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그 외의 물질적인 복지나 사회변혁운동을 하위의 가치로 둔다고 해서 영적 환원주의에 빠지자는 말은 아니다. 영혼구원을 위하여 모든 사회복지의 내용이 기독교적 복음을 믿는 것으로 환원(reduction)될 필요는 없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봉사와 복지 활동 속에 녹아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적 복지선교의 실천방법이다. 복지선교를 실천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겸손과 감사로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이웃을 봉사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전도의 실적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여야 한다. 율법주의적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기는 것이다. 조금하게 복음전도부터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하다.

## (2) 규범과 상황

두 번째 복지선교를 수행하려 할 때 닥치는 문제는 규범과 상황의 관계이다. 성경의 윤리는 모두 규범윤리(normative ethics)이다. 물론 사랑이니 정의니 평등이니 하는 추상적인 계명도 있지만, 사랑, 정의, 평등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반면 세속적 사회복지학의 측면에서 성경을 볼 때는, 혹은 세속화된 사회 속에 사는 보통사람이 볼 때는, 성경의 규범이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성경은 이혼이나 낙태나 동성애를 정죄한다. 그러나 일반사회에서는, 이혼을 정당화하고, 태아의 복지보다는 산모의 복지를 우선시하고, 동성애자가 “성적 취향을 달리하는 소수인”으로 분류되어 복지의 주요 대상이 된다. 일반사회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를 볼 때에는 사람의 인격과 사정을 보아주지 않는 율법주의로 보기도 한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비판하는 율법주의이다! 기독교의 가치가 율법주의로 보이게 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일부 기독교인과 교회에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규범윤리가 아닌 상황윤리를 주장한다. 반드시 어떤 규범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기독교적 윤리라는 것이다.

사례2. 중국인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복지선교를 실천하는 N교회의 C전도사가 있었다. 하루는 중국인 자매 중 한 사람과 그의 친구 정도 되어 보이는 형제가 보자고 하였다. 사정을 들어보니 딱하기 그지없었다. 자매가 근무하는 공장의 한국인 과장이 중국인 자매를 강간하여 임신을 시킨 것이었다. 그에게 가서 따져 보았지만 딱 잡아 댈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 이 자매는 불법취업자이기 때문에 과장을 고소하면 자기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에 오기 위하여 천 만 원 정도 빚을 졌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중국에 돌아가면 인신매매업자에게 몸이 팔려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이 자매는 이미 중국에 남편과 아이가 있는 몸이다. 이들은 C전도사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C 전도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적 규범윤리는 추상적인 가치의 충돌을 막아주

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세속적 복지학의 가치의 경우에 추상적인 가치가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해 줄 근거가 희박하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 가운데 “사회정의와 평등”이라는 가치와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가치가 충돌할 때 어느 것을 우선시 할 것인가? 가치의 충돌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sup>4)</sup> 가치와 윤리의 창조자인 절대적 인격자인 신(神)을 염두에 두지 않는 세속적 가치체계의 경우, 가치의 충돌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한 사회가 다원적인 문화와 다원적인 종교로 구성되어 있을 때, 가치충돌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성경 안에는 인간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갈등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믿는다. 위의 예2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 규범(낙태 반대)과 상황(산모의 인권보호)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적 규범(태아 보호)과 또 다른 성경적 규범(산모의 인권보호)의 충돌인 것이다. 이혼의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전체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여성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동일한 원리를 임신중절수술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많은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규범의 틀을 제시해 주고 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관계, 사랑과 정의의 관계, 자율성과 강제성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등. 모두 독자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이지만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데, 성경에서는 이를 통합하고 있다.

복음주의 교회가 주장하는 규범윤리의 단점은 상황의 변화를 따라가는 속도가 늦다고 하는 것이다. 성경은 2천 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오늘날 우리의 세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해 간다. 물질적인 환경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포함한 정신세계와 사고의 틀까지도 변한다. 기독교적 가치를 천명할 때 현대문명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고려하여 규범을 재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적 규범가치를 현대의 상황에 적용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할 때, 성경이 가진 규범윤리라는 큰 장점마저도 그 빛이 바래게 된다.

### (3) 성경언어와 세속적 언어

변혁모델을 생각하면서 복지선교를 수행하고자 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문제는 성경의 언어와 세속적 언어의 관계이다. 성경적 가치체계를 정립할 때는 필수적으로 성경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경학자들은 당연히 성경의 용어를 가지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진술하고 행동방향을 정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가치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구현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세속적 사회복지학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사회봉사부의 “기독교사회운동 지침서”는 이 점에서 모범이 될 만하다. 이 문서에는 일곱 가지의 핵심가치가 나타나는데 모두 성경적 언어로 되어 있다: “정의의 추구,” “구조적인 사랑의 실천,” “풍성한 생명의 삶,” “평화의 선언,” “지극히 작은 자들과의 연대,” “근접해야 할 목표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선성” 등. 그 핵심가치가 근거삼고 있는 성경구절도 나와 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진술에서는 현대의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에 대하여 답을 하는데, 아름다운 성경의 언어와 매우 구

4) Frederic G. Reamer, 장인협 등 역,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경기: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이 대표적인 예이다.

체적인 현대의 언어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가치인 “풍성한 생명의 삶”의 경우, 하나님을 생명의 창조주이며, 예수를 부활의 삶을 열어주신 생명이며, 성령을 풍성한 생명으로 이끄는 영이라 한다. 그리고 현대의 문제를 논하면서, “생태환경은 자정력을 상실하고 신음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를 남용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상업주의를 팽배하게 만들고, 화학비료와 농약, 유전자 변형이 자연을 오염시킨다고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사회운동은 인간 생명과 생태생명을 위협하는 세계화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풍성한 생명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체제를 구축하고, 죽음과 죽음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생명과 살림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창출”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는다.

하지만 모든 번역이 다 그렇듯이 이 문서에서도 다소간의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다. 너무 원문에 충실하다 보면 번역문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현대인에게 맞게 번역하다 보면 원문의 의미를 상실하게 마련이다. 위의 경우에도 과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일차적인 의미가 생태계 복원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영적 생명인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기독교사회운동 지침서”는 현대 사회철학에서 통용되는 가치인 “생명”과 성경의 생명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오류는 네 번째 가치인 “평화의 선언”에서도 나타난다. 평화의 히브리어 원문은 “샬롬”이다.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샬롬의 내용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분열의 조건을 극복하고, 모든 폭력과 전쟁을 거부하며, 모든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모두가 평화롭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한다. 참으로 현대사회, 현대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의 해결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 모든 것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지 않은가?

#### (4) 교회와 정부

교회가 복지선교를 수행하려 할 때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 바로 예산이다. 교회의 헌금은 주로 교역자의 생활비와 교회 운영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형교회가 아니면 복지를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다. 경로대학을 운영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나 노숙자를 위한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모든 경비를 다 교인들의 헌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의미 있는 복지선교를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지자체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을 대행할 사람이나 기관을 찾기 때문에 시정부와 교회가 연합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수도 있다. 혹은 교회에서 자금을 들여 복지법인을 설립하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면 시정부에서 운영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스러운 교회와 세속적 단체인 정부가 얹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아무리 해도 소규모 미인가시설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경우에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시설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의 종교행사에 제약을 받을 것이다. 현재는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가 시설이나 교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일 경우에도 종교행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한 자금의 경우 철저히 그 사용처를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불필요하게 정부와 교회가 얹혀 들어가게 된다.

사례3. M 시에 있는 K 교회는 일찍 사회복지에 눈을 떠 교회 옆에 조그만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교인들이 독거노인을 정성껏 돌보아주면서 이들에게 복음도 전하였다. 그러나 역시 예산이 문제였다. 늘 쪼들리는 돈 때문에 S 목사님은 목회보다는 돈을 마련하느라고 바쁘시다. 생각하다 못해 국가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저리로 대출해 주는 돈을 받아 땅을 사고 복지관을 지어 복지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주변은 막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서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교회에서 땅을 산다는 소문이 들리면 분명히 땅값은 더 오를 것이 분명하다. 마음이 다급해 진 목사님은 대출받은 돈과 교회의 현금을 몽땅 가져다가 땅을 사고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였다.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서였다. 그런데 금융기관 감사에서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S 목사님은 횡령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땅과 건물은 은행에 압류되었다. 목사님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하였으나 교회는 시험에 빠져 성도들이 다 떠나고, 곧 이어 복지시설도 문을 닫았다.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기본적으로 교회와 정부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다. 물론 영역이 엄밀하게 구분되어 서로 분리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계를 갖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국가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 세운 기관이기 때문에 공동의 관심분야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사회복지의 분야는 교회와 국가의 공동 관심분야이다. 정부에서는 사회의 안정과 시민이 보호를 위하여 복지를 수행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전도를 위하여 복지선교를 수행한다. 정부와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 공동의 영역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일들은 참여정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니 중앙정부나 시정부에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 물론 우리 정부가 점차로 복지 예산을 늘려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정신과 그 정신을 체현하고 있는 사람이다. 돈만 들인다고 해서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한 복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에서는 돈을 대고 교회에서는 사람을 대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고, 정부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사회 통합에 관심이 있으니, 공동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기관에서 기독교적 복음전도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직접적인 복음의 전도나 복음전도를 위한 예배 행위 같은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복지사나 자원봉사자가 진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리고 틈틈이 개인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지선교는 훌륭하게 실행되리라고 믿는다.

## 결 론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람들과 늘 접하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고, 그들이 정당한 학문과 대화하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기독교는 독창적이며 포괄적이며 배타적인 종교이고 사교의 체계이다.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을 바라보며 세상을 구원한다고 말한다. 기독교가 어떤 하나의 사상이나 체계에 포섭되어 하나의 하부개념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위에서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복지선교라든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복지선교가 세속적 복지학에서 배워야 할 것과 비판해야 할 것이 있다는 원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복지를 시행하려 할 때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우리 교회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환원주의와 자기만족에 빠져 있지 않기 위하여, 그러면서도 진정한 복지는 기독교적 가치 위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복지선교의 이론과 실천의 기틀을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이제 개략적으로 제시한 틀을 이해하면서 개별적인 실천을 통하여 이를 정교하게 다듬어가면서 복지선교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